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그리고 어린이 서비스



이 숙 현*

최근 도서관이 중요한 사회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고 특히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어린이를 위한 전용도서관의 설립이 증가되고 있다. 이를테면 전국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이 9곳에 설립되었고 개인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어린이전용도서관 혹은 문고 등의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는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에서 공공의 재원으로 이용자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일반적 인식이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도서관 설립을 주도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 서비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는 기존의 어린이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확장하는 등 어린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큰 발전은 도서관 정책 담당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설립 개관하였다는 것이다.

2006년 6월 28일 역삼동에 개관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일본국회도서관의 국제어린이도서관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흔치 않은 국립어린이도서관으로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도서관이 개관하기 전까지 약 3년의 준비과정에서 직원들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분야 중의 한가지가 도서관의 정체성 확립이었다. 특히 도서관 주변에 그리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 않아 내관이용자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강남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기획단에서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연구,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전용도서관 아동사서의 의견수렴 그리고 열린정책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내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국내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구심체로서 그리고 정책도서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우리협회 간행물위원회 위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lsh1020@nl.go.kr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 어린이도서관계의 발전을 선도하며 궁극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독서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에 보급하고, 둘째, 아동사서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셋째, 국내어린이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수립 및 협력망 구축, 넷째, 아동자료연구도서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서비스의 모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근거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국내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혹은 사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업무를 개발 추진하고 있다. 외부전문가와 협력하여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서진흥프로그램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의 아동사서를 위한 계속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양질의 직원이 조직의 성공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현장의 아동사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사서를 배출하는 국내의 미비한 제도적 환경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다. 또한 양질의 도서관 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아동문학가는 물론 아동자료 연구자들의 지원기관으로서 아동문학 및 아동출판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부응하며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 서비스가 반석위에 올려질 그 날이 올 때까지 도서관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대한다. 